

B-08 · TRACK B

피해 뒤 회복하기

추가 손실을 멈추고 상황별 창구를 찾아요

자료	핵심요약
대상	중학생
학습시간	약 45분
활용	학습 전후 빠른 확인

이 자료는 일반 교육자료입니다. 실제 계약·신고·신청 전에는 연결된 공식 기관의 최신 안내와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.

PART 01

한눈에 보기

피해가 의심될 때 '내 잘못'이라고 숨기면 추가 송금·계정 악용·증거 소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. 회복의 첫 단계는 책임을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확보하고 원본 기록과 공식 도움을 연결하는 것입니다.

오늘의 한 행동: 가상 상황 한 개를 '멈춤-보존-알림-공식 창구' 네 칸에 정리합니다.

PART 02

핵심개념

- 추가 손실: 처음 문제 뒤에 돈·정보·권리가 더 잃어지는 것
- 원본 기록: 편집하거나 다시 만들지 않은 처음 자료
- 공식 창구: 기관이 홈페이지·앱·대표번호에서 안내한 도움 경로
- 상황 분류: 문제 유형에 따라 먼저 연락할 곳을 나누는 것

PART 03

안전한 판단 순서

- 1 지금 계속되는 송금·로그인·협박 등 위험을 멈춘다.
- 2 안전한 범위에서 원본 기록을 보존한다.
- 3 정한 어른에게 시간순으로 사실을 알린다.
- 4 송금·금융거래는 금융회사 공식 사고신고와 1332, 범죄·협박·긴급 위험은 112, 소비자 거래는 사업자 공식 절차·소비자24 등 상황에 맞는 창구를 찾는다.
- 5 회수·보상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고 안내받은 다음 절차와 접수기록을 남긴다.

PART 04

문제 발생 시

안전이 위협받으면 기록보다 먼저 가까운 어른과 긴급 도움을 이용합니다.

안전이 위협받으면 기록보다 먼저 가까운 어른과 긴급 도움을 이용합니다.

- 악성앱·계정 탈취가 의심되면 감염이 의심되는 기기로 검색·인증을 계속하지 말고 다른 안전한 기기와 어른의 도움을 이용합니다.
- 피해 회복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지만 빠른 중단·신고·기록이 선택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.

마지막 확인

- 생활안전 연결: 권리·기록·위험을 확인해 가상 피해 상황을 송금·계정·온라인 거래·협박으로 구분하고 중단·보존·알림·공식 창구 연결을 수행한다.
- 결론보다 먼저 확인한 정보와 판단 근거를 말합니다.
- 오늘의 한 행동: 가상 상황 한 개를 '멈춤-보존-알림-공식 창구' 네 칸에 정리합니다.